

미래교육 상상공부

교육사유를 통해 바라본 미래교육상상

01 우리 교육은?

서숙희

네 발 달린 주사위가
덩그러니 앉아 있다

한 번 높이 던져볼, 기회조차도 없는
사각의 살찐 고립들이
방 하나에 갇혀 있다

이력서 쓰기가
특기가 된 이력 위로
그나마의 스펙은 스팸으로 쌓이고
눈 붉은 불면의 밤은 무겁고도 더디다

밤새 다 식어버린 인스턴트 희망들을
비닐에 싸서 담아 불법으로 투기해도
누구도 추궁하지 않는,
무관심은 합법이다

02 전교조? 참실련? 실교모? 교육공동체?

- ▶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교육적이어야 하는가?
- ▶ 하늘에 주먹질을 할 것인가? 교육을 연구할 것인가?
- ▶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잘 가르치며,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다.
- ▶ 진보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 설 땅이 없다.

02 교육시장/현장/상품/경영?

▶ 교육의 자율화

공공부문을 비효율과 권위주의로
민간부문을 효율과 창의성으로 등치

국가가 개입하면 구리고
민간에게 맡길수록 참신하다?

학생들의 취향이 다양하니 획일적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교가 나와야 한다.
->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이른바 귀족학교, 엘리트 학교의 등장
버림받는 학교는 일반 국민들의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서열 4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려고 할까?

02 교육시장/현장/상품/경영?

▶ 교육의 상품화

학교와 교사는 공공기관, 전문가가 아니다.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 경쟁하는
상품 공급자이다.

특목고, 자율고, 자사고, 특색학교
자율형 공립고, 창의 인성학교

우린 일반학교가 아니다.

학교 다양화
학부모 선택권 강화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주체 아니던가?

심지어 혁신학교까지 한 변종으로 간주

쇼핑센터에 늘어선 상품처럼 학교를 고르고
방과후 학교 등에서는 교사를 고르는 권리

02 교육시장/현장/상품/경영?

▶ 경영? 컨설팅?

효율화

비용 효과성
승자에게 혜택을 더 많은 주는 경쟁?
패자의 몫을 삭감하여 승자에게 혜택을 제공!

계량화

표준화/계량화
학문과 교육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체르니? 베토벤? (논문실적)
브람스?

02 교육시장/현장/상품/경영?

▶ 표준화 검사

학교는 자율권이 주어지며
학부모들은 각 학교를 시장 상품처럼
자유롭게 선택한다.

상품의 가격표와 같이
학교도 공통의 가치척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표준화 검사점수이다.

누구나 함께 받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03 PISA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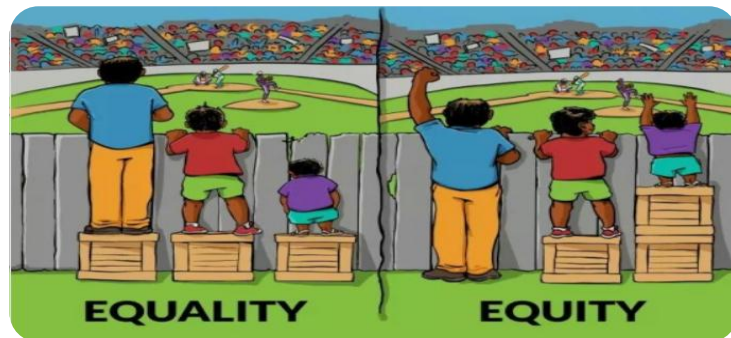
▶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효과 연구

형평성을 통한 수월성

- 교육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할당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

- ✓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에 오히려 효과적이다.

- ✓ 진보진영이 '영미식 경쟁교육'이라는 담론을 사용한 것과 달리 영국과 미국은 수준별 분반수업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이며, 덕분에 학생들이 동기하락을 크게 겪지 않았다는 점.



교육사유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1 교육 아노미

▶ 교사의 권위와 학생들의 이탈, 끔찍한 경쟁

메리토크라시

- 교사들은 기성세대이지만 권위를 갖지 못하고,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의 이탈을 온몸으로 경험한다.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버티는 것에 익숙하다.

✓ “가만히 있어라” - 우리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단면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해라’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1 교육 아노미

▶ 교사의 권위와 학생들의 이탈, 끔찍한 경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술적 되뇌음을 해야 하는 교사들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정말로 심각한 것은 끔찍한 경쟁 속에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의 전망 없는 미래에 대한 좌절이다.

✓ 첫눈이 내린다. 맨 처음 떨어지는 눈은 태어날 때부터 맨 아래 있던 눈.

맨 아래에 있던 눈은 떨어진 후에도 맨 아래.

눈이 되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고꾸라져 녹아버린다.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1 교육 아노미

▶ 학생 통제 정당화, 교사의 권위

학생 통제 -> 교사의 권위 회복

- 학생들을 통제하고 싶은 세력, 질서를 위해 인권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 좀 더 강화한 규칙으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정당화 되는 세상

✓ 학부모와 교사 누가 더 상대적 약자인가?

학부모와 교사를 왜 대결의 구도로 바라보는가?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1 교육 아노미

▶ 생각해볼 문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진실입니까?

✓ -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한 민주적 역량을 길러야 하며, 민주적 지향을 더 깊숙하게 내면화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 사회는 더욱 더 열악하다.

시민들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하여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해서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삶의 문법을 강요 받아야 해서다.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1 교육 아노미

▶ 생각해볼 문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현재 학교 교사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공교육에서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2 교사 전문성

▶ 교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육적 사유를 하고 있는가?

-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풍부한 교과지식, 수업기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유능력이다. 교직의 기능화는 눈에 보이는 수업 기술의 연마를 유도하며 교사의 사유능력을 제거한다.(P.104)”
- ✓ “교사 자신부터 기능적 절차와 방법들, 매뉴얼과 상세하게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이다.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습성’이 몸에 달라붙게 하는 것이다. (P.105)”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2 교사 전문성

▶ 생각해볼 문제

사유하는 교사

- 수업기술의 연마를 유도하는 것이 사유능력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사들이 학생과 학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교사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기능적 절차와 방법들, 매뉴얼과 상세하게 작성된 지도안으로 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3 학급 공동체

▶ 학급이 왜 필요한가?

학급관리의 목적은 학업 성취 및 무사고이다.

- 각자에게 번호가 부여되고 명렬표 및 각종 기록부가 만들어 진다. 성취와 무사고를 위해 명렬표와 기록부는 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다양한 학급경영 기술과 매뉴얼이 있고, 이것을 잘 하는 교사가 전문가로 호명되기도 한다.
 - ✓ 학급 안에서 발생하는 서열문화를 스즈키쇼는 '교실 카스트'라 명명하면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3 교사 전문성

▶ 생각해볼 문제

학급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어떠해야 합니까?

- 학급 관리의 목적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것입니다. 학업성취와 안전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학급 구성원이 현재와 같은 30명 내외가 지속된다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도와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인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자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서열문화를 만들고, 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문화적으로 생활하려는 자를 억압하고 있는가요?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4 교사와의 만남

교사와 학생을 위한 새 학기

학생과의 첫만남, 설레는 떨림과 희망 찾기

- 새 학기는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설레는 때다. 학생들은 누가 내 새 담임이 될까, 어떤 분일까, 어느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누구와 짝이 될까..., 모든 것이 궁금하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중략) 바로 이 설렘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 원천이다. (p.66)
 - ✓ 진정으로 어떤 일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는 어떤 잣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그 경계는 모호해서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기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다. 지금 이 일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이다.(p.67)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4 교사와의 학생의 만남

▶ 생각해볼 문제

새학기 설렘으로 시작할까? 두려움으로 시작할까? 선생님은?

- 교사와 학생에게 새 학기의 설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 학기의 설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학교 문화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 3월 아이들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 바뀌어야 할 학교 문화는 무엇인가요?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5 교사 전문성과 사유

▶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읽고, 생각하고, 쓰고, 나누기

- "교사들에게 좋은 책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라. 또 좋은 사람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하라. 교사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통하여 그의 전문성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다.(p.114)"
- ✓ "요즘 아이들은 특히 타인과의 관계 능력이 취약하다. 삶 속에 녹아드는 민주 시민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여 에너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다.(p.71)"

02. 실천하는 교사,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사유

04 교사 전문성과 사유

▶ 생각해볼 문제

교육적 민감성, 교사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 교사의 전문성은 사유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였는데, 시민의 역량과 구분되는 교사의 전문성의 사유는 무엇인가? **교육적 민감성, 교육자의 눈**
-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의 민주시민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03. 디지털시대의 교육

01 지식공유와 협력적 문제해결력

- ▶ 철학/인문/기술/방법이 따로 노는 교육이 아니다.

